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Case study on the conflicts faced by the husbands married Female Immigrants

채옥희** · 홍달아기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과

OckHi Chae · DalAhGi Hong

Dept. of Family·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Some Korean men choose to marry a foreigner expecting that marriage will solve all their problems. Therefore, this case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how to prevent conflicts in the marriage and how to get used to the marriage life. First, it is apparent that these match-makings between Korean men and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commercialized and are based on the two parties' convenience. Second, it is more possible that the issues with the role of husband/wife and the allocation of household labor stem from the cultural differences from international racial differences rather than Korean men are authoritative or patriarchal. It seems that the foreign brides from the third world countries choose to marry Korean men with only a single purpose to financially help their parents. While neither willing to share household labor nor providing what is expected to be a wife, they demand financial assists for their parents or choose to get a job at a factory to make money. Third, the husbands expect their wives to learn Korean since there is not much opportunity to learn the wives' language and the culture. Also, the textbooks are rare to find for the languages. Moreover, the husbands do not have the enthusiasm or the ability to learn due to age.

Fourth, the Korean men are rather psychological, financial, social victims than domestic abusers.

Key Words : married female immigrant, authoritative, patriarchal, match-makings, financial assists, social victims

I. 서론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2008.5)에 의하면 현재 국내거주 결혼이민자는 124개국에서 116,475명에 이르며 이 중에서 여성은 102,520명(88%)으로 과히 다민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의 순으로 되어 있고, 이 7개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결혼시장의 변화로 국내에서 신부를 찾지 못한 농촌총각에 국한 되었

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농촌총각의 초혼에 국한되지 않고 재혼을 비롯한 도시거주 일반인들의 결혼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문화적 충격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이들의 문제를 조사 보고 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계에서도 이들의 결혼생활과 더불어 가정생활의 적응 및 갈등에 대한 연구(박현정, 2004; 윤정숙, 임유경, 2004; 채옥희, 홍달아기, 2007)와 다양한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 만족도, 부부갈등요인 가족문제, 등에 의한 연구(김오남, 2006; 설동훈 외, 2005; 양순미, 2006; 하밍타잉, 2005)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결혼이민여성의 어

* 이 논문은 2007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OckHi Chae
Tel: 063) 850-6654, Fax: 063) 850-7301
E-mail: chae@wonkwang.ac.kr

려움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이질감과 소외감,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 가정폭력, 아내에 대한 남편의 행동통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혼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이혼을 요구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문제와 갈등을 배경으로 연구하면서 갈등을 강화시키는 요인과 함께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김오남, 2006; 유가효 외, 2008)와 결혼기간과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감소하거나 여성이 개인적으로 갈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 사례를 밝힌 연구(최금혜, 2007; 한진수, 2006)가 있으나 남편들의 어려움은 연구된 바가 없다. 특히 대중매체들은 극단적인 피해자로서의 국제결혼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피해자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들은 대부분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농촌지역 사람들로서 짧은 기간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아내를 만나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매일 부딪치고 협상하고 살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 계층적, 사회적 재생산의 불평등과 지구화의 짐을 외국인 부인과 함께 한국인 남편들도 지고 있는 것이다(윤형숙, 2004).

2005년 혼인·이혼 통계에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이혼율은 2,444건으로 전년도 보다 51.7%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제결혼준비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결혼생활이 실패하는 경우가 51.7%이며 이중에서 중국이 1,431건으로 전체의 58.6%이고 다음이 베트남 289건(11.8%)이다(통계청, 2006).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배우 이혼율은 2.80%로 한국인 유배우 이혼율1.2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결혼 혹은 동거중인 결혼이민여성들의34.1%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2006년도에는 각 시도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을 돕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남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남성들도 피해자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나타내는 어려움을 기반으로 부부간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이 겪는 갈등과 피해사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을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들 사이에 피해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남성이 무조건 결혼만 하면 잘 살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선택

하므로 결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관점

국제결혼이 가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현상과 함께 많은 연구들의 경향은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제3세계 여성들이 단지 가난에서 탈피하고자하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가?'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들은 모두 매매혼이라는 상업화된 도구적 결혼을 하게 되는 피해자인가?' '한국남성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가부장적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가?'하는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윤형숙, 2004; 한국염, 2004; 홍달아기, 채옥희, 2006)들은 국제결혼의 매매혼적 측면과 한국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가하는 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피해자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남편의 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결혼이민여성을 국제결혼의 뒷에 걸린 희생자라는 이미지로 고착시키며,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도와주어야 한다는 고착된 사고를 갖게 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은 빈곤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피해자라면 보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의미, 내용,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위자임을 인식(윤형숙, 2004)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온 결혼이민여성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적극적인 생활 자세가 결여(채옥희, 홍달아기, 2006)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한다.

후진국여성과 선진국 남성사이에 성사되는 국제결혼을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및 가사노동의 교환으로 보며, 여성들이 남편의 사적인 통제 하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하여 콘스터블(Constable, 2003)과 사이몬스(Simons, 2001)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제3세계여성들에게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국제결혼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둘째, 국제결혼을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성적서비스의 교환이라는

관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제결혼여성과 남성모두에게 매우 억압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국제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삶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으로 결혼해오는 제3세계여성들의 국제결혼 현실은 이주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남성들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문제점도 더 커지는 것이다.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부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를 포함한 어느 결혼에서도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 평등, 의사소통 등이 부부관계나 부부 적응에 있어 공통적인 갈등의 요소(이은주, 2007)가 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부부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어려움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국제결혼부부를 돕는 실천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파생되는 독특한 관심사에 민감하고 부부각자의 세계관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결혼부부에게는 일반부부와는 다른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아내 나라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쌍방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을 선택하는 남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결혼이민자남편의 특징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엄연하고 부인할 수 없는 농촌이나 도시근로자의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실태와 적응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해왔다. 따라서 국제결혼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선행연구(김상임, 2004; 박현정, 2004; 설동훈, 2005; 윤형숙, 2004; 이금연, 2003)를 통해서 결혼이민자남편들의 문제와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상업화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국제결혼과정에서 결혼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결혼하기 전에 부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거나 1-2번만 만남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이후에는 종교단체보다 중매업체를 통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볼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후 적응에서 어려움은 많다. 특히 결혼중매업체는 결혼성사에만 급급하여 배우자의 신상을 부풀리거나 거짓말까지 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부실결혼을 양산하며 과대 포장된 허위정보를 제공(설동훈 외, 2005) 하기도 한다.

베트남여성과의 결혼비용은 한국남성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중매업체에 지불하였으나 베트남 정부의 규제로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결혼중매업체들은 국제결혼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몽골이나 캄보디아여성을 중매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는 중국 한쪽으로 확대되면서 중매업체는 800에서 1000만원을 한국남성으로부터 받고, 중국한국여성에게서 300-500만원의 돈을 받고 결혼을 알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남녀모두에게 상업화된 도구적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중매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는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설동훈 외, 2005)이라고 한다. 또 한국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를 못 만나서'(51.6%), '한국여성보다 배우자로서 더 좋다고 생각되어'(35.5%), '현재부인을 사랑하여'(9.7%)로 응답(홍달아기.채옥희, 2007)하고 있어서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동기가 다른 점을 보여주며,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의 동기가 '경제적 이유(41%)'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부부는 결혼의 의미를 부부간의 애정이나 가정의 소중함 등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은 남성과 여성 쌍방의 상업적이며 도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기간동안 갈등과 원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은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태도가 강하다는 연구(김오남, 2006; 설동훈 외, 2005; 윤형숙, 200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음식문화,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의 문화적 차이, 권위적인 남편태도, 남편의 술과 담배, 도박,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에서 갈등을 느낀다. 특히 한국남성이 가부장 특권으로 행사하는 권위의식이나 폭력, 무능력에 대한 부인의 실망감은 단순한 문화차이라거나 남편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아내의 실망감보다 더 크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가부장적 특성은 선행연구(안현정, 2003; 윤형숙, 2004)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문

제, 생활방식의 차이와 경제적 요구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은 아내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여성에게는 한국어나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이 당연시되며, 남편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으로 여성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편들에게 아내나라의 언어나 생활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설동훈 외, 2005; 안현정, 2003; 임혜경, 2004)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누적되거나 언어폭력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지 않아 이들은 부부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김상임, 2004)고 밝혔다.

한편 가정생활상에서 가장 힘든 사항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여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며, 결혼생활 3년 이상이 되면서 한국음식에 적응되어졌다(하밍타임, 2005)고 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대인관계적응뿐 아니라 문화적응도 어려운 상황에 더하여, 남편인 한국남성은 아내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하게 됨으로 언어와 생활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한국남편들은 가정폭력자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31.8%가 지난 1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여 언어폭력의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5.6%의 남편들이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때리겠다고 위협을 받은 부인은 18.2%, 실제로 손발로 구타당한 부인은 13.0% 세계 밀침을 당한 부인은 12.3%(박현정, 2004)에 이른다. 광주, 전남거주 결혼이민여성의 30%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광주여성발전센터, 2002)하고 있다.

설동훈 외(2005) 연구에서는 이들은 대략 4명중 1명꼴로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하였다. 현재 별거하거나 이혼한 결혼이민여성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이 높는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강요는 40%이상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절대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남편 폭력의 피해자

인 결혼이민여성의 사례가 상담소나 고발을 통해서 밝혀진 사례들로 남편이 가해자로,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되는 경우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실제 조사에서도 한국남편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어서 함께 생활하는 남편들의 고충 또한 출입국관리소나 관련기관들을 통해 피해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자국민 들은 어떤 갈등과 고충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첫째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결혼이민여성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갈등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사항을 역(逆)검증 형식으로 남편의 피해사례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남편특징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갈등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남편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질문에 의한 일대일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라북도내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면담을 요청해온 결혼이민여성 남편 18명을 대상으로 1차 상담 후 2-3차 개별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문제에 맞게 중요한 주제를 범주화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심층 면접한 조사대상자 13명의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표 2>.

결혼이민여성과 남성의 결혼은 대다수(11명)는 중매결혼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다. 한국 남성은 중,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였고, 베트남, 중국여성은 중학교정도 졸업했으나 필리핀여성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중퇴자로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남편은 농업종사자가 3명이고, 이발사, 운전기사, 체육관근무, 철물

<표 1> 질문내용

연구문제	주요 영역	하위 질문
기본사항	일반적 사항	결혼연도, 본인과 아내의 연령, 학력, 본인의 현재직업, 현재동거가족, 주거상황, 거주 지역, 아내의 국적, 초·재혼, 남편의 월소득정도 등
결혼의 상업성	결혼동기, 방법, 결혼가치관	결혼방법은? 결혼동기는 무엇인가? 결혼방법에 대해 만족스러우나? 결혼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생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내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가족들은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	가사분담 부부역할	아내의 살림수준은 어떠한가? 집안 살림은 누가 도와주는가? 부부공동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내나라의 문화이해	언어, 생활문화 애정표현	아내나라의 언어를 접할 기회와 교육받을 기회는? 아내나라의 의, 식, 주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아내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는? 부부간의 애정표현방식은? 어떤 문화적 차이가 적응하기 힘든가?
가정 내 폭력	아내폭력 남편폭력	아내를 때린 경험이 있는가, 언어폭력의 정도, 아내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과 정도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나이(남, 여) 초 재혼	거주지 (면, 동)	학력 남(여)	직업 (남)	주거 양식	결혼 년수	동거 가족	아내 출신국	비고
1	38, 25 (초혼)	동	대(고)	체육관 강사	자가, 아파트	2년	부부	중국	찾은 모국 방문과 장기체류, 과다한 친정지원 요구
2	40, 24 (초혼)	동	대(중)	철물점	자가, 단독2층	6개월	시부모	중국	폭언, 폭행, 과격한 행동
3	45, 28 (초혼)	면	고(대중퇴)	목축, 농업	자가	3년	부부+2	베트남	배려심 없음, 남편을 머슴 취급
4	53, 30 (부부재혼)	면	중(중)	이발사, 공장	자가	3개월	부부	중국	돈이 최고, 과격한 행동, 취업전제 결혼, 전처자녀 취업으로 분가, 전남편자녀 중국에 1명
5	47, 25 (초혼)	면	고(대중퇴)	무	단독, 전세	3년	시모+1	필리핀	가출 후 무소식
6	56(재혼), 20(초혼)	동	고(초)	버스 기사	자가, 아파트	2년	부부+1	베트남	본국으로 가자고 조름, 문화적응 어려움, 전처자녀2명 취업으로 분가
7	45(초혼), 32(재혼)	면	중(고)	무	자가	1년6개월	출국	중국 조선족	살림보다 돈벌이에 관심, 중국에 전남편 자녀 1명
8	30, 27 (초혼)	동	대(대)	학원강사	자가, 아파트	1년6개월	가출	중국	물성실한 아내역할, 배려없음, 과격한 싸움
9	45(재혼), 29(초혼)	면	중(대졸)	농어업	농가	4개월	부부+2전처소생, 남(13,9세)	방글라데쉬	과격한 행동, 폭행폭언, 가출
10	38, 23 (초혼)	동	고(중)	회사원	자가, 아파트	2년	부부+1	몽골	시부모동거거부, 살림은 뒷전, 게으름
11	35, 23 (초혼)	면	고(중)	회사원	농가	3개월	부부+시부모	중국	질병을 갖고 결혼, 분가와 취업을 원함
12	41(재혼), 30(초혼)	동	중(고)	가게	가게 +방한칸	3개월		우즈베키스탄	사기결혼, 다른 남자아기를 임신하고 결혼, 가출
13	52, 43 (초혼)	면(정신분열)	중(대졸)	농업	농가	9년	부부+시모+자녀3명	필리핀	남편 질병악화에 따른 가출, 자녀를 필리핀에 둠

점 운영 등 도시근로자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1명은 교통사고로 걸음이 불편하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제 3세계의 결혼이민여성은 교육수준이 낮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평균 16세로 나이차이가 많다.

한국남성은 초혼이 8명이고 재혼이 5명이며 결혼이민 여성은 2명이 재혼이며 11명이 초혼이다.

주거지역은 농촌이 6가구이고 도시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7가구이다.

현재 가출중인 아내는 5명이고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2명이다. 남편에게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며 쉼터에 있는 여성은 1명이다.

IV. 분석결과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으로 겪는 갈등과 문제점은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부적응과 남편의 폭력 등 결혼이민여성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역(逆)으로 남편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남편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이 갖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상업적이며 도구적이다?

결혼동기, 결혼방법을 통해서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상업적이고 도구적인지 그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부모님께 효도하기위해

사례 1 체육관에 근무하면서 “한국여성들을 만나보았으나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한다는 말만하면 여러 번 결혼을 거부당했기에”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중매업체에 1,00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으로 가서 3-4번의 만남으로 결혼을 하였다. 신부가 예쁘다고 중매업체에 추가비용 300만원과 처가에 결혼비용 500만원도 지불하고 한국에서 일가친지

를 모시고 결혼식을 하였다.

사례 2 시집을 때 중국에서 결혼비용으로 빚을 지고 왔기에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한다면서 남편이 20만원씩 매달 송금해주지 않으면 공장에 가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중매비용 1,000만원과 처가댁에 500만원을 지불했다.

사례 3 처가에 매달 20만원씩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아 1년 동안은 13마리 키우던 소를 4마리 팔기도하였다. 5년 전 결혼할 때 중매업체에 1,400만원을 지불했고 처가에도 500만원을 주는 등 베트남 처가에 갈 때마다 300만원씩은 주었다.

사례 11 노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결혼을 결심하고 평소에 많은 권유를 하던 중매업체를 찾아가 1,00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을 3번 방문하여 결혼을 하였다. 본인은 회사에 다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의 후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사례 12 42세가 되어 부모님의 성화와 외로움도 배가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지인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을 전문으로 하는 중매업체를 만나 600만원을 지불하고 고려인을 소개받아 10일간의 교제로 결혼을 하였다.

2) 신분상승과 자녀양육을 고려

사례 2 남편은 부모가 운영하는 칠물점에서 일을 하지만 본인이 학력이 낮아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중매업체의 말만 듣고 결혼하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아내는 중학교 졸업이다. 학력이 낮으면 어머니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속이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항상 대학 나온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냐면서 아내가 하는 태도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다.

사례 3 아내는 베트남에서 대학교 2년 중퇴이며 어린 이집에 근무했다고 말하며 남편은 농촌에서 농사와 목축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남편은 농고를 나왔기에 부인이 대학 다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례 5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혼기를 놓쳤으나 중매업체를 통해서 대학 중퇴한 필리핀여성을 만나 결혼하였다. 영어권이라서 호감을 갖았다. 결혼 후 처가집에 송금도 하고 장모수술비용과 생활비를 2년 정도 지불하였다.

사례 9 남편은 살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대학출신자라면 자녀들에게 좋은 업마가 될 것 같고 가정적으로 정서적 안정도 될 것 같아 재혼을 결심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한국여성과는 결혼을 엄두도 낼 수 없어서 방글라데쉬 아내를 맞이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중매업체의 말에 600만원으로 결혼을 하였다.

사례 13 남편은 영리하나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정신장애가 생겼으나 병원치료로 좋아져 중매업체를 통하여 대학중퇴 필리핀여성과 9년 전에 결혼하였다.

3) 가사문제해결과 정서적 위안, 안정된 가정

사례 4 부인과 사별 후 5년 이상을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취업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가사노동에서 해방해보려는 의도로 재혼을 결심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국내에서는 재혼해오는 여성을 찾기 어렵던 차에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외국여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중매업체의 권유로 재혼을 결심했다.

사례 6 운전기사인 남편은 7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고 두 자녀와 살다가 자녀들이 직장 찾아 멀리 간 후 외로워서 결혼중매업체 주선으로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였다.

사례 7 나이가 30대를 넘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었으나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색시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결혼을 포기하였으나 부모님을 잘 아는 주변의 결혼중매업체가 중국조선족을 소개하여 중국을 3번이나 방문하여 처갓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아내라서 부담 없이 결혼하였다.

4) 사랑을 바탕으로

사례 8 남편은 중국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유학생이었던 아내를 강사로 채용하였고 1년여의 교재로 연애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남편은 유학생인 아내의 학비와 생활비도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살았다.

사례 10 몽골처녀들이 성실하고 체격도 좋고 몽고반점이 한국인과 공통적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결혼을 결심하고 누나 회사에 다니는 몽골인의 중매로 교제 6개월 후 결혼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한국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은 대부분이 상업적인 결혼중매업체를 통했으며, 도구적 결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남성들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재혼의 경우 외롭고 쓸쓸하거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염원하면서 재혼을 결심하고, 초혼인 경우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여성의 학력이 자신보다 좋아서라거나, 사랑해서 결혼하기 보다는 돈을 매개로하여 인력을 구매하는 듯한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결혼의 의미나 가치관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초점을 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시작된 국제결혼이기에 결혼준비도 없이 나

이가 들면 결혼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한국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의미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한국남성은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태도가 강하다?

한국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권위가 한국문화의 저변에 내재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의 생각도 많이 변화하여 외국인 아내를 선택할 정도로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고, 양성관계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와 긴장은 대부분 전형성을 벗어나지 않지만 그들의 생활에서 정서적 표현, 신체적 애정표현, 성역할과 권력배분에 대한 신념, 가족구조에 대한 문화적 영향, 사랑의 의미 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관계가 그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Okun, 1996; Ney&Snyder, 2000)은 중요하다. 가부장적 태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사분담과 부부역할에 대해서 심층 면 접하였다.

1) 가사분담갈등

사례 3, 4, 7, 9 등 대부분의 사례들은 “결혼하면 아내가 해주는 밥 먹는 것이 당연한일 아닙니까? 물론 나도 밖에 나가 일하고 시간되면 아내를 위해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아내는 밥하기는커녕 청소, 세탁 등 가사노동은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든 공장에 나가 일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돈 벌기위해서 결혼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한다.

사례 3 자녀를 두 명이나 둔 부부의 문제는 여성의 가사노동 태만이다. 열심히 밭과 들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밥도 해주지 않으며, 베트남 여성들과 어울려 하루 종일 맛있는 것 해먹고 놀면서 남편이 돌아오면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겨 놓지 않고 집안을 어지럽혀 놓고도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살림살이에는 등한시한다.

사례 4 시골생활이라서 실망했는지 오자마자 전화기만 붙잡고 있더니 1주일도 되지 않아서 벽돌 공장에 다니게 되고 집안 살림은 무관심하다.

사례 7 결혼 초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시댁에서 식생활은 해결하고, 세탁기며 청소기 돌리는 것은 남편이 하고 부인이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중국 출신이라 한자는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눈이 되어줄 줄 알았다며 시무룩하다.

사례 1, 8, 10 결혼 초부터 아내는 늦게 일어나고 가사 노동은 하지 않는다. 중국은 가사노동은 남성이 주로 하고 몽골여인들은 늦게 일어난다기에 남편은 혼자 살던 데로 열심히 밥해놓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돌아와도 아내는 밥은커녕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라면이나 빵으로 저녁식사를 한다.

2) 부부역할갈등

사례 1 1-2개월 동안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며느리라서 고심하였으나 중국은 남성도 가정 일을 같이 한다기에 자신도 가정과 직장 일을 열심히 하였다. 3개월이 지나면서 아내는 술과 담배를 피우고 공주같이 대접받기만 바라고 친정에 돈 보낼 것을 강요하며 중국을 1년 사이에 3번이나 가는 등 낭비벽이 심하여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나 아내는 이혼은 절대하지 않으려 한다.

사례 3 베트남의 도시생활과 달라서 한국시골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낳아도 변하지 않으며 남편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어 자신은 아내의 머슴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사례 4 남편은 아들이 보내주는 돈과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의 적은 소득으로도 시골에서는 잘살 수 있는데 아내는 아침밥도하지 않고 새벽같이 공장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며 저녁식사준비도 남편이 한다. 잘살아보려고 재혼했는데 더 힘들게 되었다고 이혼을 결심하고 있으나 아내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한다.

사례 5 결혼1년 후 남편은 병마와 싸우게 되면서 직장도 잃고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들어 필리핀에 송금도 하지 못하게 되고 전셋집으로 이사까지 하였다. 근래에는 아내가 지역 장기자랑에 나가면 언제나 우승을 하여 상금을 타고 급기야는 TV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결혼생활의 현실과 사회를 비교하면서 집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딸아이를 하나 낳긴 채 3개월 전에 가출하였다.

사례 6 남편은 홀로 살아온 세월이 많아서 가사 일은 물론 청소와 세탁도 도맡아 해왔다. 아내가 출산 후 남편은 너무나 힘들어 졌다고 말한다. 남편과 아내도 아이를 기를 줄 모르고 아내는 위생관념이 없어서 잘하라고 말하면 토라져서 며칠씩 말도하지 않아서 더욱 힘이 든다.

사례 7 "가부장적 권위라니요 난 부인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이 고맙고 즐거웠어요.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자고하면 그렇게 해주었고요.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같은 마을에 사는 어머니가 매일해주시고 세탁은 세탁기로 하고요. 아내는 공장만 다녔어요."

사례 8 아내와 2년 동안 살면서 밥하기 싫어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 않아 주로 외식을 했고, 세탁과 청소는 항상 남편이 하거나 2주일에 한번정도 시어머니가 와서 집안일을 해주었다. 아내가 받는 학원 강사료는 중국에 송금하고 옷을 사 입거나 자신의 용돈으로 충당하면서 핸드폰요금도 1달이면 30-40만원씩 남편에게 의지하는 등 호화롭게 살았다.

사례 11 시부모는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요즘 색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나 싫어 모든 가사노동을 다해주고 한국생활에 익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내는 3개월이 지나도 밥하기는커녕 78세시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밥하고 청소를 해도 아무런 일도하지 않으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되어준 것만도 고맙고 기쁘다고 하는데 남편은 어머니께 죄 짓는 기분이라고 한다.

사례 13 아내는 10년 동안 91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자녀 3명을 낳고 불평 없이 생활했다. 아내는 6년 전부터 경제권도 가지고 살림을 도맡아했으며 논도 팔아서 필리핀에다 가게를 구입하는 것도 합의를 하였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혼생활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 평등은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40대 이상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가사노동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아 역할분담의식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나, 30대는 아내에 대한 기대보다는 동반자로서 생활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가 다른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한국남편들이 갖는 아내에 대한 기대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불만과 피해의식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가간, 인종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역할이나 가사노동분담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더욱이 결혼이민여성들은 본국에서나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사노동이나 부인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친정에 돈을 보내기를 요구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취업을 하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사례를 통해 볼 때 한국남편들의 특징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이제 한국남성에게도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3. 한국남편들은 아내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미약하다?

남편들은 아내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교재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결혼이민여

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영어라도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필리핀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초기의 남성들은 생각과 실생활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베트남 신부를 맞이한 남성들은 베트남여성들이 순종적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결혼하였지만 게으르다고 말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 후 1-2년 정도인 경우는 음식문화에 대하여 매우 어려움을 표현하는 반면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음식문화에 적응된다(유가효 외, 2008)고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나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남편들은 아내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 기회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아내나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서로의 문화차이를 좁히고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남편의 아내나라 문화갈등의 하위영역으로 언어와 생활문화에 대한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

사례 2 어른이 들어와도 거실 가운데 누워 있기에 좀 일어나서 인사도하고 식사 때 되면 밥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남편을 발로차기에 밀쳤더니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쉼터에 데려갔다고 한다. 어차피 속아서 한 결혼이니 이혼하겠다는 남편에게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며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사례 6 재혼으로 나이차이가 많고 딸보다 어린 아내가 몹시 사랑스러웠으나 베트남 여인의 애정표현이 독특해서 남편의 양 볼을 소리나게 두드리는 데 처음에는 곤혹스러웠고 꼭 뺨을 맞는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사례 8 남편자신이 중국말을 할 줄 알고 중국어학원도 운영하면서 유학생으로 온 아내와 결혼하였다. 아내는 아침 늦게 일어나고 가사노동은 일체하지 않아도 문화차이라고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유학생인 아내의 학비까지 부담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사례 10 아내는 늦게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에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분가를 하였다. 분가 후 자녀를 낳으면서 몽골에서 장모님이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반가웠으나 좁은 공간인 아파트에서 살면서 장모의 옷차림과 식생활이 전혀 맞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운 3개월을 보냈으나, 아내는 장모를 다시 초청해오기를 몹시 희망한다. 몽골에는 과일이나 채소가 부족해서인지 식사에서 고기만 먹게 되어 힘들었다.

사례 12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내이지만 고려인이라서 한국말도 할 수 있었기에 결혼이 가능했다. 중매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아내의 서구적이고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놀랐으나 10일간의 교제로 결혼 후 1박하고 한국에 돌아와 7개월을 힘들게 수속하여 한국에 온 아내는 만삭이었다.

2) 언어

사례 3 베트남처가에 갔을 때도 아내에게 배운 몇 마디로 베트남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사례 6 아내를 따라 베트남에 가서 살기위해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였으나 너무나 어렵고, “공부 잘하면 이렇게 살았겠느냐면서” 베트남어 배우기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례 7 한국말을 잘하는 조선족아내를 맞이하게 된 중요한 이유도 “자신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례 11 아내가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 다니기를 기대하면서 학원비까지 지원했으나 다니지 않아 한국말은 전혀 못한다. 몸도 부실하여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시어머니는 딸 이상으로 잘 대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 것 같이 하더니 결혼 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분가와 취업을 원하고 중국의 부모님을 초청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남편은 나이가 많고 배움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이 없어서 한국에 온 아내가 한국말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남편이 말하는 예의범절과 외국여성의 행동은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며 부부간의 애정표현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는 외국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결혼이민여성 남편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여성을 받아들인 한국가족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4. 한국남편은 가정폭력자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나 연구대상이 인권센터나 이주여성쉼터에 있거나 폭력으로 노출된 대상이 많기 때문인 점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이민여성에 의한 남편에 대한 폭력은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연구도 없다. 근래에는 남편의 피해사례가 전화나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다.

남편에 대한 만족해하는 부인은 유가호 외(2008)의 연구에서처럼 “남편은 착하고 잘해주어요, 집에 일찍 오고 집안일도 잘해준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남성들도 노력하면서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중매업체의 무분별한 상업적인 불성실한 태도와 부인들의 결혼의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본태도가 갖추어 있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다수의 사례들은 결혼 후 첫 3년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남성들은 3년 후가 더 어렵다고 말한다. 첫 3년은 오히려 말이 안통해도 외국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체념(윤형숙, 2004)하고 살지만 그 후에는 답답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다고 한다.

사례 4 아내는 중국으로 매달 10만원씩 송금 해주기를 강요해서 2개월을 해주었는데 그 후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하니 “돈도 없으면서 결혼했느냐”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 때쓰듯이 하더니 벽돌공장으로 돈 벌러 다닌다. 자주 소리를 지르는 아내의 말뜻을 몰라서 통역에게 부탁했더니 “무서운 저주와 같은 욕설이라는 말을 들은 요즈음은 아내가 무섭다”고 한다.

사례 8 연애결혼이라서 “서로 사랑한줄 알았는데 아내는 자신을 이용하고 떠났다면서 유학생할 중 학비도 지불해주고 생활비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었던만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하소연한다.

사례 7 아내가 이상한 점이 많았다면서 밥을 먹으면서 말할 때 숟가락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다고 그릇이나 음식을 집어던지며 발로 자신을 차기도 해서 곤욕스러울 때가 많았으나 아내가 도망갈까 두려워 자동차도 사주고 참았다고 한다.

사례 9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으나 잘살아보려고 일부러 결혼경험이 있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말도 통하지 않는 아내는 자신이 꿈꾸는 결혼이 아닌 것 같았는지 결혼해오자마자 외부와 전화만 여러 차례 하더니 큰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욕박지르고 3개월이 되어서는 칼부림을 하면서 무섭게 굴더니 가출해버렸다.

사례 12 아내가 2007년부터 6개월간 한국불법체류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면서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한국 도착 후 시댁에 가서 1박하고 남편 집에서 1박한 후 아내는 서울로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 간 후 소식이 없다가 외국인증명서가 나온 2개월 후에 타인을 통해서 여권과 외국인 증명서만 보내달라는 요구가 왔다. 남편은 억울하다면서 자신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자라면서 하소연하였다.

사례 13 자녀3명과 91세 노모와 잘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의 병세가 심해짐에 따라 아내는 필리핀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서 필리핀에 남겨두고 혼자서만 돌아와 서울 어디에서인가 돈을 번다고 가끔 전화만 하고 시골집에는 내려오지 않는다.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소연도 해보지만 10년여를 한국생활해온 영리한 아내가 자신을 버렸다고 한숨짓는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한국남성들은 가정폭력 자라기 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에게 저주의 소리를 지르거나, 칼부림을 하기도하고, 유학생할 동안의 편안한 동거 후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위장결혼이나 결혼 2년이 되기 전에 자동차를 팔고 공장에서 일한 돈 등 생활비를 챙겨 돌아가거나, 만삭이 되어 한국에 왔다가 사라진 사기결혼 등의 피해자임을 볼 때 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결혼에 있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결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결혼중매업체의 각성과 철저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결혼이민여성의 문화 부적응과 남편의 폭력 등 결혼이민여성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을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들 사이에 피해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대책과 무조건 결혼만 하면 잘 살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므로 결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이 갖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은 상업적이며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결혼이민여성이나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은 중매업체를 통한 돈을 매개로한 상업적이며 도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남성이 말하는 재혼의 결혼의미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의미

한다. 초혼인 경우도 사랑보다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신보다 학력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당사자 간의 사랑은 이차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결혼의 의미나 가치관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지만 쌍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도구적결혼의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제3세계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은 본국이나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친정에 돈 보내기를 요구하거나, 밖에 나가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 보내고자 결혼해온 도구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모양처를 기대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어렵다. 따라서 갈등이 그러나 결혼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배우자선택 전에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는 결혼준비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부부가 서로 다른 결혼동기를 갖고 출발하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부관계강화훈련이나 관계증진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은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태도를 갖는다?

한국남성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기보다는 국가간, 인종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역할이나 가사노동분담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특히 40대 이상의 남성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역할분담과 가부장적 권위의 측면도 있으나, 30대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보다는 동반자로서 생활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문화가 다른 아내와 결혼으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불만이 많은 국제결혼의 피해자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한국남성의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태도는 남성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제는 동반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권위적인 가부장적 사고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생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의식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남편은 아내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미약하다?

남편들은 아내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교재도 구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한국남편은 나이가 많고 배움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온 아내가 한국말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남편이 말하는 예의범절과 외국여성의 행동은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며, 부부간의 애정표현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는 외국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결혼이민여성 남편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결혼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내나라문화 알기 프로그램이 개발

되거나 이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방법과 교구교재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한국남편들은 가정폭력자이다?

그동안 많은 발표와 연구가 다루어 왔던 내용이다. 한국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와 무지가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남성들은 가정폭력자라기 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에게 저주의 소리를 지르거나,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유학생활 동안 편안한 동거 후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위장결혼이나, 만삭이 되어 한국에 왔다가 사라진 사기결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할 수 없는 국제결혼의 덫에 걸린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국민에 대한 아무런 제도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건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 한국남성도 다양한 동기에 의해 국제결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은 제3세계여성들과는 많지 않은 결혼비용만 있으면 중매업체를 통해서 학벌이 좋거나 젊은 외국여성과 쉽게 결혼이 성사된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도구적 결혼동기에 결혼중매업체의 상업성이 더해져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한국남편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들은 대부분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외국아내를 만나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갈등을 겪으며 생활한다. 특히 제3세계여성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남성들은 계층적,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과 세계화의 짐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결혼이민 여성은 결혼에 대한 코리아드림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하고, 한국남성은 결혼준비도 없이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하게 되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가족생활교육, 가치관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남성을 위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결혼준비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기결혼과 위장결혼을 부추기는 중매업체의 정비와 정척이 요구된다. 나아가서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갈등과 적응문제보다는 초국적인 가족형성이 미래 한국의 가족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 다문화 시대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주제어 : 결혼이민여성, 권위적, 가부장적, 결혼중매, 재정적 지원, 사회적 희생자

참 고 문 헌

- 광주여성발전센터(2002). 광주. 전남외국인 여성실태조사 보도자료 무등일보, 2002년10월30일 "10명중 3명 남편 학대에 시달려"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박현정(2004). 광주, 전남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3-34.
- 법무부(2008). 서울출입국관리소 통계, 2008.05.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안현정(2003).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유가효 · 홍성희 · 김성숙(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2).
- 윤정숙 · 임유경(2004). 성별 화된 이주방식으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연대.
-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이론적 연구-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채옥희 · 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 채옥희 ·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하명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염(2004). 이주여성의 여성화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 이주여성 인권센터. 1-16.
-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 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Constable, Nichole(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mons, Lisa Anne(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eminism" Ph. D Dissertation. Univ. of Denver.

(2008. 8. 4 접수; 2008. 10. 14 채택)